

# 화순 백신연구단지 활기 뛴다

내년 독감백신 원료 생산...수도권 생산라인 이전

화순 백신연구단지에서 내년부 터 독감백신 원료가 생산되고, 수도권 백신 생산라인이 이곳으로 이전해 오는 등 화순지방의 약산업단지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물의약(백신)산업을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2002년 '생물의약연구원'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화순지역이 국내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화순읍에 총 사업비 251억원이 투입돼 지난 해 설립된 '생물의약연구원'은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화순읍에 총 사업비 251억원이 투입돼 지난 해 설립된 '생물의약

연구원'은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는 의약연구원 외에도 국내 최대 백신제조회사인 (주)녹십자와 의약품·생물산업 관련 벤처기업 5곳의 연구개발시설이 들어서 있다.

의약연구원은 의약품 제조업 협회와 국가 연구개발 과제 6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관 제약기업 6곳을 유치해 우수의약품제조기준(KGMP) 인증과 '생물의약품' 제조라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결핵예방접종(BCG)백신 생산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87억을 들여 화순에 관련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013년

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BCG 백신은 올해에도 43만도스, 110억원 상당을 수입해 녹십자가 이를 생산하면 수입대체효과가 것으로 기대되며 이 밖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백신과 AI 감염치료제, 단자백신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정순주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생물의약연구원과 녹십자, 화순 전남대병원을 연계한 '생물의약(백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며 "녹십자의 성공에 힘입어 많은 연관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영광 구도심 불 밝힌 루미나리에

456세대 규모...23일 기공 2010년 준공



장성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장성군은 오는 23일 사업 대상지에서 이첨 장성군수를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는다.

장성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 8월 준공 목표로 412억원을 투입, 영천 1지구 국민임대주택 인근 부지 2만185m<sup>2</sup>에 456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장성군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동화 전자농공단지,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의 분위기 조성 및 국가개발 촉진지구 확장지점에 따른 주택 수요량 급증을 감안해 착공시기를 1년여 앞당겼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변 SOC 확충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서 페트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의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가지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류중선기자 yjs52@

## F1대회 홍보 '포사모' 발대

2010년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 모임인 '포뮬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포사모)이 1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F1 흥보활동에 나선다.

'포사모'는 1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2010 F1대회의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F1대회 지원활동을 펼친다. <인터넷 20면>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포사모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흥보단 결성, 모터스포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주제발표, F1성공기원 사인판 서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청렴도 조사 납득할 수 없다"

## 강진·무안군 강력 반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황주홍 진진군수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진군이 전국 86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84위)에 포함된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실수된 명예회복을 위해 권익위를 상대로 청렴도 산출의 근거자료 요구와 함께 순위 정정요구,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는 8.98점으로 전국 자체 평균보다 1.01점이 높았고, 특히 군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에서는 9.63점(전국평균 8.73), 업무지시 공정성 9.48점(8.16), 예산집행 8.64점(8.24) 등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전화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외부 청렴도 분야에선 6.63점으로, 전국 평균인 7.88점 보다 낮은 평가를 얻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강진군은 최근 3년간 군 소속 공

무원 중 뇌물수수나 험등 등 공무원 비리로 적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청정 자치단체"라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것은 모두 무시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만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황 군수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진군 청정 공무원 3명이 금품과 험등을 받아 청렴도가 낮게 평가됐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만약 사실일 경우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공직부패를 뿐만 아니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전국 자체에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무안군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투명성지수와 책임성지수는 전국 어느 자치체보다 높게 나왔으나 부폐지수에서 일부 응답자가 악의적인 답변을 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도 평균(8.07)보다 높은 8.21점을 받았으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답변한 1명 때문에 5.78(평균 8.42)점을 받았다"며 "무안군이 그동안 인사나 공사 발주 등과 관련된 비리가 없는 민원 이번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진=박진표기자 lucky@ /무안=대성수기자 dss@

## 장성 영천 2지구 임대주택 본격화

456세대 규모...23일 기공 2010년 준공

장성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장성군은 오는 23일 사업 대상지에서 이첨 장성군수를 비롯해 이낙연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는다.

장성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 8월 준공 목표로 412억원을 투입, 영천 1지구 국민임대주택 인근 부지 2만185m<sup>2</sup>에 456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장성군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동화 전자농공단지,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의 분위기 조성 및 국가개발 촉진지구 확장지점에 따른 주택 수요량 급증을 감안해 착공시기를 1년여 앞당겼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변 SOC 확충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서 페트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의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가지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변 SOC 확충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영천 2지구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 8월 준공 목표로 412억원을 투입, 영천 1지구 국민임대주택 인근 부지 2만185m<sup>2</sup>에 456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장성군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명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사모는 F1대회의 자발적 지지그룹으로 F1대회 관련 소식 전파, 지지 댓글 작성 등 온·오프라인에서 F1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7천3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

장은 "포사모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F1대회 홍보의 구심점이 될